



[뉴스] 뛰는 비트코인 위에 나는 알트코인 자금유입 활발 02



코스피	3187.42 (-15.91)	코스닥	1054.43 (+1.47)
금리 (연이자율)	1.464 (+0.005)	환율 (원/달러)	1157.80 (+1.30) (7일)



삼성전자는 C랩 인사이드를 운영하며 사내 스타트업 발굴을 장려하고 있다. 사진은 C랩 인사이드를 통한 스프린트 기업 예바. /삼성전자



LG전자는 생활가전 분야 사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 선발에 나섰다. /LG전자

해외서 술술 팔리는 우리 술, 무대 넓힌다

주류업계, 해외시장 진출 박차
하이트진로, 과일소주 앞세워
중 등 80여개국 영업활동 매진

한류,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K-드링크도 주목 받으면서 주류업계가 해외 주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소주의 경우 아직 소주가 생산한 해외 시장에 달콤한 과일 소주를 앞세워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중국시장 소주류(참이슬 및 청포도에이슬 등 과일리큐르)의 수출량이 100만 상자(상자당 30병)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단일국가 한해 판매가 100만 상자를 돌파한 것은 1994년 일본 이후 두 번째이다.

하이트진로는 중국 시장 소주류 판매를 2018년 이후 연평균 41% 키워왔으며 작년에는 87만8000상자를 판매, 전년 대비 약 56% 증가시키며 성장폭을 크게 넓혔다. 특히 소주류 가운데 과일리큐르의 비중은 2017년 14%에서 올해 60%로 확대했다.

하이트진로는 대표 제품 참이슬의 80여개국 수출을 내세워 과일리큐르를 수출 전략상품으로 해외 영업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50여 개국에 과일리큐르를 수출 중이며 2016년 자몽이슬, 청포도에이슬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자두에이슬, 2019년에는 딸기에이슬을 출시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는 경영 3세인 박태영 사장을 필두로 해외 시장에

서 맥주 성과를 낼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맥주 사업의 세 승부처를 해외 시장으로 보고 올 상반기 맥주 테라를 미국·홍콩·싱가포르 등 3개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 소주가 그랬던 것처럼 교민 시장에 맥주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뒤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한식당 등으로 판매처를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의 해외 시장 경쟁자가 되는 오비맥주는 몽골 등을 중심으로 카스의 동남아 지역 수출을 이끌고 있다.

2016년부터 카스 수출 활성화에 나선 오비맥주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1700억원이 넘는 영업수익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4면에 계속)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기술혁신에 상생협력, 사회문제 해결까지 기업 '미래 경쟁력' 스타트업서 찾는다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다. 지원금 등 물질적인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뿐 아니라 상생 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여기에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발굴도 활발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의 스타트업 기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LG전자, 국내외 스타트업 발굴해 미래 준비

7일 LG전자는 'LG 홈 테크 이노베이터'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한 이대회를 통해 LG전자는 생활가전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생활가전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유망 스타트업 발굴 분주
국내외서 경진대회·공모 잇따라
혁신기술·아이디어로 미래준비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지원 분야 다각화로 단계별 육성
232팀 146억 지원, 1923명 고용

LG전자는 오는 30일까지 인공지능 서비스 Biz·메타버스·LG전자 가전제품과 연계되는 요소 부품 기술·가전 사업 신사업 모델·ESG 등 분야와 협업할 스타트업을 찾는다. LG전자는 여러 차례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최대 3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한 스타트업 가운데 최대 10개의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약 3개월의 컨셉트 증명 과정 등에 사업화지원금 1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LG전자는 이 밖에도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 등을 스타트업에 연결시켜 주는 등의 지원이 있다고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와 함께 할 파트너사를 선발하는 것"이라면서 "LG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고객사가 되며, 향후 스타트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LG전자 생활가전에 접목되는 방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지난 1일부터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전은 ▲커넥티드 헬스 ▲e-모빌리티 인프라 확장 및 전동화 활성화 방안 ▲LG 씽큐 플랫폼 기반 커넥티드 홈 관련 스마트 라이프스타일 ▲메타버스 ▲사람·사회·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LG의 혁신 철학에 부합하는 새로운 혁신을 주제로 한다.

LG전자는 내년 6월 말 최대 10개 팀을 최종 선정하며 이들 사업 수행에 최대 2000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임팩트 스타트업 단계별 육성 지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의 스타트업 지원사업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는 'A·B·C' 구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팩트 스타트업' 지원이 특징이다.

정몽구 재단은 2012년부터 시작한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을 올해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로 명칭을 바꾸고 'A·B·C'로 지원 스타트업을 다각화했다. H-온드림 A에서는 3년 미만 초기단계 임팩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검증 등을 지원한다. 정몽구 재단은 올 4월 21개 팀을 선발하고 총 6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2면에 계속)

/한창대 기자 cd1@metroseoul.co.kr



1주택자 중부세 과세기준 11억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중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중부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7일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K-배터리 '리콜 악재'에 中 반사이익

세계 배터리 사용량 中 1위 뺏겨
中 저가공세에 국내3사 점유율 ↓

글로벌 배터리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을 앞세워 배터리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치킨게임은 물론 완성차 업체까지 합류하는 등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리콜 결정이 잇따르면서 K-배터리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

션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에 밀려 고전했던 중국 기업들이 최근 국내 기업 배터리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빈틈을 파고들면서 빠르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된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SK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업체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EV, PHEV, HEV)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37.1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된 전기차 판매 회복세가 완연한 성장세로 넘어가고 있어 이 같은 증가 추이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무섭게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세계 1위 CATL과 4위 BYD 등 중국계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했다.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영향이다.

반면 국내 3사의 점유율은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난 33.2GWh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2위로 전년 동기보다 낮아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기간 탑재 사용량이 147.8% 급증하면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한 5위를 기록했다. 삼성SDI는 7.0GWh로 사용량은 86.9% 증가했지만, 순위는 전년 동기보다 두 계단 하락했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은경 "10월말 단계적 일상회복... 실내 마스크 착용 마지막까지" /사진 뉴스1
▲ 외교부 "파이브 아이즈 참여, 검토하고 있지 않다"

▲ 군인권센터 "폭언·따돌림 겪던 해군 병사 휴가 중 사망"
▲ 윤석열, 위기 돌파구 '깜깜'... 골든 크로스 위기



▲ 이인영 통일부장관, 북핵 재가동 징후 지적에 "소홀하게 생각 안해" /사진 뉴스1
▲ 국산 SLBM, 잠수함서 수중발사 시험... 시험 발사 지속 전망